

K-반도체 미래 ‘광산구’… 지속가능 성장모델로 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광산구를 주목한 이유

혁신성장 모델 스스로 발굴·육성… 국가 정책으로 키워내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지역사회 통합돌봄·자치권 확대 등
정책 모델 검증 사례 평가… 국가 차원 입법·정책 가능성 검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장 협력 … 지역 불균형 해법 모색



대한민국 지역 불균형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 정책연구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가 첫 현장 연구의 사례지로 광산구를 주목했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것은 지역이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광산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9일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임문영 국회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진과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사례지역 현장간담회’를 열고 광산구의 성장 전략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불평등 연구’의 첫 사례조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입법조사처 설립 이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전 분야 조사관들이 함께 현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며 “지역 불균형 연구의 첫 사례지가 바로 광산구”라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에 안고 있는 과제가 특정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인지 살펴봤다. 또한 현장의 정책을 단순히 소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시작된 정책이 국가 차원의 입법 과제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했다.

△박병규 구청장의 정책 실험. 국가를 움직이다 입법조사처가 광산구를 첫 사례 지역으로 선택한 배경에는 지역이 스스로 정책을 발굴하고 국가정책으로 키워낸 광산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치권 확대 등 지역이 축적해 온 정책 경험이 다른 지방정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속가능일자리 정책은 입법조사처의 큰 관심을 받은 분야였다.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광산구의 사회적 대화 모델은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는 현실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광산구가 국가 반도체 프로젝트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간담회에서는 지속가능 일자리특구 정책을 비롯해 살던집 프로젝트,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권 권한 확대 등 광산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이 소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별 사업의 성과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했다.

시민과 전문가가 어떻게 참여했는지, 제도와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국가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 광산구에 달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광산구에서 추진되는 반도체 프로젝트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연결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공정과 기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하고 함께 일자리, 교통, 주거 등 도시 전반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정책과 도시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산구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사례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이관후 처장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짊어진 프로젝트가 지금 광산구에서 시작되고 있다”며 “이렇게까지 준비한 지역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의 미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손발을 맞춰 입법과 정책을 함께 만들어 지방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번 사례조사가 광산구민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이 특정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방정부가 공통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달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광산구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임문영 국회의원,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대응 시민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광산구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

으로 안고 있는 과제일 수 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정책과 제도적 한계를 입법 과제로 연결하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이 추진하는 정책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인지,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반도체 프로젝트 역시 산업 유치 자체보다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과 도시, 주거 여건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사례조사는 중앙정부에 지역 현안을 건의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광산구가 축적해 온 정책 경험을 국가 차원의 입법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광산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불균형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며 광산구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정책과 입법 과제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이 먼저 정책을 실험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모델이 광산구에서 시작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이어질 때 완성된다”며 “광산구에서 시작한 정책과 현장의 경험이 국가 제도와 입법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인터뷰 박병규 광산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달 9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광산구 현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 결실 맺을 것”

도시 재설계 반도체시대 기반 마련… 지역 변화·발전 방향·전략 등 모색

“반도체 프로젝트가 광산구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반도체 프로젝트는 단순히 공장 몇 곳을 유지하는 사업이 아니다. 광산구는 물론 대한민국 1호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업이 현실화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광산구는 대한민국 AI·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대규모 평탄 부지와 우수한 광역교통망, 기존 산업단지와와의 연계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다.

그동안 꾸준히 이곳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라고 제안해 왔고, 이번 결정은 광산구와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800조원 규모의 투자뿐 아니라 민군공방 이전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까지 추진할 새로운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반도체 프로젝트는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반도체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중요한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램 4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10년, 100년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도체 프로젝트는 지역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국가 전략이다.

산업만 성장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와 함께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주거 여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광산구가 민선 8기부터 추진해 온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도 같은 철학에서 출발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과 구조를 바꾸고,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과 도시,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반도체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반도체 프로젝트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산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광산구는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행정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구정 운영 방향 전반을 반도체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을 찾아 광산구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의 요구를 국가사업에 반영할 정책 기반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 행정 조직과 인력 운용도 사업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중앙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와의 협력체계도 더욱 강화하겠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 100년 이래 최대의 기회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광산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